

## 화광동진, 상선약수의 삶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이곳 백암산과 내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양사의 새벽 공기가 제법 춥습니다. 운문암과 천진암 계곡이 만나는 곳에 서 있는 쌍계루가 수면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영은 더욱 깊어지고 애기단풍은 붉게 물들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지 너댓 달,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쉽게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북한의 무력시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진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도 쉬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화광동진, 먼저 깨우친 자들이 그 빛을 감추고 속세의 티끌에 섞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입니다. 상선약수, 참으로 지극한 도는 낮은 곳을 향해 물처럼 흘러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빛과 물이 그렇듯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내 보이는 선의와 긍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어타, 차별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과 못생명을 껴안으며 함께 걷는 만민평등의 삶,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마음속에 고요히 새겨봅니다. 세상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사유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